

# 순천만 두루미 799마리 관찰 역대 최고



### 흑두루미 등 3종 서식환경 최적지

### 지난해보다 100여마리 가량 증가

순천시는 14일 “지난 13일 흑두루미 개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흑두루미를 비롯한 두루미류 3종

799마리가 관찰돼 지난해 최고 기록인 693마리보다 무려 106마리 가량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무논습지 조성, 벗짚준치, 차량불빛 차단용 울타리 설치, 철새지킴이단 운영, 철새

먹이주기 등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바탕이 됐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한국두루미네트워크 이기섭(53) 박사는 “두루미 먹이주기는 유아 사망률을 낮춰 두루미가죽이 대를 이어 순천만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면서 “순천만 흑두루미 증가 패턴은 1950년대 일본 이즈미시의 초기상황과 비슷하며, 순천만 흑두루미의 개체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순천만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생태보전사업의 범위를 더 넓혀나갈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새의 중요한 먹이자원인 새섬매자기군락의 증가로 개리(천연기념물 325-1)와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도 지난해에 비해 개체수가 약 50% 증가했으며, 회귀철새 뒷부리장다리물떼새 4마리가 나타나 탐조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 경도 앞바다 백조떼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백조 20여 마리가 14일 새벽 여수시 경동동 경도 앞바다에서 관측돼 화제가 되고 있다. 백조는 몸길이 1m 안팎의 조류로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다가 4월 시베리아 등으로 되돌아가는 대표적 겨울철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

### 생산성 높이고 잉여 스팀·폐열 재활용 에너지 절감

### 안전관리 강화·인프라 확충 등 30개 중점사업 발굴

전남도는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잉여 스팀 및 폐열 등의 재활용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여수산단 녹색고도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산단 녹색고도화는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산단 리모델링, 산단 고도화, 클러스터 구축, 지역사

회 공헌, 연구개발(R&D) 확대, 법제도 개선 등 8개 분야 총 30개 중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원료 및 제품 수송관로 설치에 필요한 공용 파이프랙을 증설하고 잉여 스팀 및 폐열을 부족한 회사에 공급하며 폐수 처리시설 확충, 전력 안정화, 낙포부두 개선, 공업수 공급 개선 등 산단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산단 내 잉여 유틸리티와 유유자재 및 설비, 운유 저장탱크 등을 통합관리해 운영하고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원료로의 재활용을 추진한다.

산단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해 기술을 지원하고 단지 정보자원 및 인프라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며 도로를 확충·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복지 편의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상반기에 ‘여수

산단 녹색고도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여기서 발굴한 30개 중점사업별로 주관할 기관과 기업체를 선정했다.

30개 중점사업 중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고도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승병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장은 “녹색고도화 사업은 여수산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 신안 등 무인도서 6기 신설

### 노후 항로표지시설 4곳 개량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부지역 섬에 무인도서 6기가 신설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14일 “올해 70억원을 들여 등항로표지시설 확충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무안군 청계면 죽도를 비롯해 탄도, 신안 팔금면 원산리 선착장 등 6곳에 등대를 세우고 노후 항로표지시설 4개소는 개량할 예정이다.

특히 목포구등대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편의시설 확충, 조망시설 정비 등을 마친 뒤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지난 9일 소형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뒤 기념촬영에 나선 영광지역 농업인들.

## 농기계 면허 취득 농업인 급증

### 영광 농기술센터, 작년 100명 교육훈련 지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직접 운행하는데 필요한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전남지역 22개 시·군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기계 구입비나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영광군 농기술센터는 14일 “지난 9일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 소형건설기계 무시험 면허취득 교육’을 끝냈다”고 밝혔다.

농기술센터는 올해도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인용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무면허시험 자격취득’사업에 응모해 2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센터 측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 140명, 2013년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교육훈련은 면허전문 교육기관에 1박2일 동안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고 이를 영광군청 건설방재과에 제출하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현재 영광군농기계 임대사업소는 100종 518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임대 횟수가 1만 4000회에 이르고 있다.

농기술센터는 특히 연간 사용횟수가 많지 않아 농가에서 구매를 꺼리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매해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임대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15일 전에 예약 신청해야만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조익삼기자 ischo@

## 여수 오동도 새 ‘동백열차’ 첫 선

### 시, 오늘부터 본격 운행

여수 오동도의 명물 동백열차(사진)가 새롭게 제작돼 첫 선을 보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지난 4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만든 새 오동도 동백열차를 15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길이 24.7m, 폭 2.4m, 높이 2.6m 규모로 제작된 동백열차는 동력차와 3개의 객차로 구성되며, 최고 주행속도는 15km/h이다.

최대 10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운전원과 안전원 등 2명의 승무원이 탑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새 동백열차는 승·하차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설계돼 탑승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



했다. 외부디자인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수시의 상징색인 호프블루와 동백꽃 이미지를 조화롭게 디자인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전면 밀폐 형으로 제작돼 추운 겨울철이나 우천 등 날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전천후 오동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여수=김철희기자 chkim@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뽕>의 이호영 대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